

## 한일수교 문서공개 대책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초청 오찬

- 인사말 -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주어 감사합니다.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든 안하든, 미결로 넘어오는 과제들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감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충분치 못 했습니다. 감당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아 감당할 만한 역사적 사실도 감추곤 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그 관계자와 상속자가 피해를 회복하려고 해도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일이 쉬운데 사실관계 밝히는 일도 대개 민간인에 미뤄놓고 학계수준에서 도와주는 정도였고 민간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체면도 안서는 일입니다. 외교문서 공개도 참여정부로서는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고, 참여정부 되면서 공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짐작만 하고 어정쩡하게 걸치고 있던 처지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법적 책임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도리의 문제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도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혜가 종합된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총리가 이 일을 맡고 있으나 총리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지혜를 가진 분을 모아 논의하고 있고, 내용도 합리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참여하신 분들의 업적

을 통해서 신뢰와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당하기 벅잡다 싶어도 도리에 맞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리면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수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수용도에 따라 마무리될 수도 있고, 미결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부도 어려움을 감수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준으로 합의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 최근 한일관계가 어렵고, 역사문제의 올바른 정립문제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